Sinopec, 2009년 정제마진 호조 전환

우리증권, 석유제품 가격 30% 급등 ... 수요 억제효과 단기에 그칠 것

우리투자증권은 9월10일 중국 최대의 정유기업 Sinopec을 탐방한 결과 석유정제 마진이 2009년 1/4분기까지 약세를 보인 후 장기 강세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중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석유제품 가격 규제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9월 소비자물가가 전망치인 5%에 가까워 관련 제품가격을 다시 인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Sinopec의 연평균 정제능력 성장률이 5-6%에 달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가 2008년 말 우려한 대로 연료유세를 도입하게 되면 석유제품 가격이 30% 급등하는 효과가 발생해 중국의 석유제품 수요증가율이 1-2%p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Sinopec의 손익분기점인 원유가격은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기준 배럴당 90-95달러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석유제품 수요가 고도성장에 따라 지속되겠지만 원유 공급 증가율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중국 정부의 석유제품 내수가격 안정화 조치로 인한 수요억제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아시아 정제마진이 인디아와 중국의 신규 정제설비 가동의 영향으로 2008년 4/4분기 또는 2009년 1/4분기까지 약세를 보인 후 장기 강세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10>